

五功臣會盟文記의 性格

沈 晦 俊*

目 次

- | | |
|---------------|-------------------|
| 1. 緒 言 | 3. 五功臣會盟手決者와 未手決者 |
| 2. 五功臣會盟軸의 本文 | 4. 結 言 |

1. 緒 言

世祖가 首陽大君時節, 그의 弟 文宗이 돌아가고(1453), 12歳인 어린 조카 端宗이 卽位하자, 王位를 탐내서 韓明澮·權璕·鄭麟趾·韓確·崔恒·申叔舟등과 共謀, 自身의 端宗元年(1453) 10月에 端宗을 保護하는 大臣중 가장 知略 있는 左議政 金宗瑞를 殺害하고, 거짓으로 安平大君 瑞과 領議政 皇甫仁 및 金宗瑞등이 反逆했다고 數10名을 죽이고 귀양보낸 일이 있었다.(癸酉靖難) 그 후 世祖自身과 韓明澮¹⁾등이 靖難功臣²⁾이 되어 實權을 掌握하고, 端宗 3年(1455) 윤 6月 11日(乙卯)에 이르러서는 다시 韓明澮등과 共謀하여 禪讓形式으로 王位를 築奪하고, 端宗을 保護하려던 世宗의 後宮 惠嬪楊氏와 端宗의 三寸이오, 世祖의 동생인 錦城大君 瑜·和議君 瓔·漢南君珍·永豐君璵·端宗의 妹夫 寧陽尉 鄭悰 등을 流配시키고, 韓明澮등을 佐翼功臣으로 삼은 일이

* 中央大客員教授

- 1) 世祖가 佐翼功臣을 정하였는데, 1等功臣으로 桂陽君·翼峴君·增·翼峴君·璉·韓確·尹師路·權璕·申叔舟·韓明澮(이상 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2等功臣으로 鄭麟趾·李思哲·尹巖·李季瞬·李季旬·姜孟卿·尹炯·崔恒·田昀·洪達孫·楊汀·權璕(이상 輸忠勤節佐翼功臣), 3等功臣으로 権恭·李澄石·鄭昌孫·黃守身·朴寔·權自愼·朴元亨·具致寬·尹士珥·成三問·曹錫文·李禮長·元孝然·韓終孫·李徵·黃孝源·尹子寶·李克培·李克堪·權愷·崔潤·曹孝門·韓繼美·鄭守忠·趙得琳(이상 推忠佐翼功臣)등이다.(世祖實錄, 卷2, 元年9月5日丁丑條)
- 2) 1455年 世祖即位에 功을 세운 者, 1등에 7人, 2등에 12人, 3등에 25人이었으니, 1456年 死六臣 事件으로 成三問, 李徵는 追奪당하고, 3등 鄭昌孫은 2등으로, 金誠은 3등으로 追錄되었다.

있었다. 그러나 이에 反해서 成三問·朴彭年·河緯地·柳誠源·成勝·兪應孚·權自慎·許性慥등은 그 해 겨울에 端宗의 復位를 決議, 世祖 2年(1456)에 成三問등이 昌德宮에서 世祖·世子를 죽이고 端宗을 復位시키려다가 金磧의 密告³⁾로 발각되어 死刑된 史實은 當時의 政局을 風前燈火格으로 몰아 넣었던 일이 世上에 알려져 있었다.

이런 實情下에 世子 瞳등은 勢力基盤을 보다 鞏固히 構築하기 위하여 過去에 있었던 (世祖 元年 8月) 四功臣盟簇⁴⁾을 더 한층 強化하기 위해 佐翼功臣⁵⁾을 더 했으니 이것이 곧 世祖 2年 11月 14일에 있었던 이른바 五功臣會盟⁶⁾이다.

世祖實錄 卷5의 記事에도 그 概略이 실려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이에 參加한 人事는 世子 瞳을 비롯하여 開國·定社·佐命功臣의 親子와 嫡長子孫·靖難功臣 및 佐翼功臣 들의 親子였으며, 自衛의 目的으로 위로는 世祖에게 忠誠을 다 하고, 아래로는 子子孫孫이 이어질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 事情은 思政殿에서 베푼 會盟飲福宴에 參席한 者가 180餘名⁷⁾이라 하였는데, 그 實相은 莫然할뿐 아니라, 當時의 具體의 인 樣相을 알 수 없다. 精文研의 「한국민족백과사전」에 실린 記事を 보아서는 會盟參加者數가 226名이라 하였으나, 그 數도 釋然치 않다.⁸⁾ 더욱기 未手決者的 性格 또한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다.

마침 獨立有功者 遺族會 常任理事인 李恒福씨藏 「五功臣會盟軸」을 본 바, 그 數도 다르거니와, 當時의 樣相이 比較的 詳述되어 있다. 이를 分析하고자 한다.

2. 五功臣會盟軸의 本文

이는 높이 45.4cm, 넓이 684cm, 卷首餘紙 30.2cm, 末葉 餘白 89.4cm, 統算 70.36cm의 幅이며, 本文 21行, 行當 26字, 楷紙로 되어 있고, 名單은 行當 많게는 51字, 적게는 8字로 되어 있고, 本文만을 빼고 적으면 다음과 같다

3)世祖實錄, 卷4, 2年 6月 2日條

4)世祖實錄, 卷2, 元年 8月 16日(乙未)條

5)世祖實錄, 卷2, 元年 9月 5日(丁丑)條

6)世祖實錄, 卷5, 2年 11月 14日(庚辰)條

7)世祖實錄, 卷5, 2年 12月 15日(辛巳)條

8)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卷15, p.832-3, 오공신희맹문

五功臣會盟軸

維歲次丙子十一朔庚子(丁卯)十四日庚辰

王世子暉<與>開國·定社·佐命·靖難·佐翼功臣及[親子]等敢昭告于

天地·崇廟社稷山川之靈固有功載之規·漢有帶礪之盟非特[酬功]

於一時，蓋欲子孫萬世，與國同[共休戚也茲愛]寵命享其厚報[可]

不世篤忠貞，以夾輔王室乎。今臣[或]在祖文之時或[親於]其[身]

遭遇

聖明攀附鱗[鱗附]翼，能除禍亂，以開

王業·能剪姦兇，以定

宗社，佐

大命於危疑之除，靖內難於濁亂之時，以至翼載

聖上，化家爲國。功載盟書，裳延後裔，皆極褒崇之典，以全終始之

恩，凡我五功臣，唯當仰體

國家之至意，無替祖父之舊德。同心協力·頃軀徇節·圖報

國恩，斃而後已。是用諱日齋齊沐，上與

王世子，質諸

神明，申結前好，以固其心。既盟之後，其各策勵，相親如骨肉，相信如

金石，毋疑於人之間言·毋介乎己之私憾，有過失則規之，有患難

則救之，永肩一心，終始不怠，上以盡忠於

一人，下匹休於萬世，子子孫孫，毋忘今日·其或有違

神明在上。

會盟者手決。未手決名單은 原稿末尾에 複寫하여 添載함。

() : 原字가 誤字임

< > : 缺字補充

[] : 未詳字是 補入

「 」 : 前後字가 倒置

(以上은 世祖實錄卷5, 二年丙子十一月庚辰條에 依據 校正)

主導者は 王世子 暉인듯이 꾸며져 있으며, 參加者は 開國功臣·定社功臣·佐命功臣·靖難功臣·佐翼功臣 등 五功臣과 그들의 子孫으로 되어있다. 北壇에 함께 가서 盟誓한 내용은 위로는 世宗의 예전의 德을 바꾸지 말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

쳐서 몸을 버리고 節介를 따라 國恩을 갚자고 한 것으로 이는 곧 世祖의 勢力基盤을
鞏固히 하자는 것이었다. 서로 親하기를 骨肉과 같이 하고, 서로 믿기를 金石과 같이
하여 사람들의 間言을 疑心치 말것이며, 自己의 사사로운 感情이 介滯치 말아서 過失
이 있으면 바로잡고, 患難이 있으면 救援하여 한 마음에 맡기어 始終 계을리 하지 말
아서 世祖에게 忠誠을 다하고, 아래로는 萬世에 아름다움을 짜하여 子子孫孫이 오늘
의 盟誓를 잊지 말자는 것이 이 軸文의 內容 要旨이다.

3. 五功臣會盟手決者와 未手決者

便宜上 會盟者の 名單은 結論末에 添載하거니와, 이를 보면 手決者가 137人, 未手決
者가 83人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未手決者의 意圖가 問題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은 會盟(世祖 2年 11月 14日) 以後인 同年 12月 3日字까지 活動을 繼續한 人物이 몇
이 있다. 즉 同年 11月 16일에 都承旨 韓明澮가 單字를 올려 政事에 關與한 일¹⁰⁾이 있
었고, 同年 12月 3일에 鄭顯祖가 河城尉로, 具致寬이 兵曹參判으로, 金磧이 同副承旨
로, 咸禹治가 判公州牧事로 發令을 받은 일¹¹⁾이 있었으니, 未手決者라고 해서 會盟의
뜻을 反對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러한 會盟이 무슨 까닭으로 일어났을까에 대하여
는 史學의 領域에 屬하는 것으로서 考究의 餘地있는 事件이다.

아마도 世祖 2年 6月 2일 金磧이 그의 丈人인 議政府 右贊成 鄭昌孫과 더부러 請한
일 중에 金磧이 成三問집에 불려가서 閑談하다가 “近日에 彗星이 나타나고, 司囊房이
시루가 저절로 울었다니,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 近日 端宗이 昌德宮北쪽 담
장문을 열고 錦城大君 瑜의 舊家에 往來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韓明澮의 謀議에 의한
것이다. … 端宗을 좁은 곳에 두고, 한 두 사람의 力士를 시켜 담을 넘어 들어 가서
不軌한 짓을 圖謀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이윽고 말하기를 “端宗과 世子
가 모두 어리나, 萬一 王位에 오르기를 다투게 된다면, 端宗을 輔弼하는 것이 正道”라
고 하였다. 當時에 左議政 韓確은 北京에 갔고, 右議政 李思哲은 決斷力이 없으니, 尹

9) 李恒曾 藏, 五功臣會盟軸(朝興銀行 롯데월드 支店 保管)

10) 世祖實錄, 卷5, 2年 11月 16日(壬午)條

11) 世祖實錄, 卷5, 2年 12月 3日(戊戌)條

師路·申叔舟·權擊·韓明澮를 除去할 것을 丈人과 協議하라”¹²⁾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결국 金磽의 密告로 擴大되어 成三問·朴彭年이 問招를 당했는데, 이 때 발각된 黨與는 李愬·成三問·朴彭年·河緯池·柳誠源·李仲林·權自慎·金文起·成勝·俞應孚·朴嶠·宋石洞·崔得池·崔致池·尹令孫·朴耆·朴大年 등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反逆으로 밝혀졌고,¹³⁾ 이로 말미암아, 錦城大君 瑜가 慶尙道 順興에, 漢南君 琰가 咸陽에, 和義君 瑞이 全羅道 錦山에, 永豐君 琨이 任實에, 鄭宗이 光州에 각각 安置¹⁴⁾된 일이 있은 후의 일이었다는데 注目되고 있다.

4. 結 言

따라서 위 會盟書는 雲劍을 차고 임금앞에서 모실 수 있었던 成勝·俞應孚·朴嶠이 制雲劍이 되었으므로, 舉事는 쉬웠을 것이나, 同 2年 6月 18日 宴會에는 失敗¹⁵⁾하였고, 後日에 世祖가 農作物의 作況을 巡視(觀稼)할 때에 路上에서 시해할 豫定이었다. 端宗도 權自慎에게 긴 칼을 내려 주었으며,¹⁶⁾ 李午도 同 6月 1일에 明나라 使臣을 昌德宮에 請하여 宴會할 때 쓰라고 內廟庫의 칼을 石乙中에게 내어 준 일¹⁸⁾등이 있었으며, 世祖의 朝廷으로서는 그 對備策의 하나로서 이러한 計策으로 講究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때의 危機意識에서 나온 團合은 不可避하여 五功臣과 그의 嫡長子孫들이 會盟하게 되었고, 當時의 複雜했던 事情을 가려내는데, 이 會盟文記가 좋은 史料가 될 것이다.

李恒曾이 간직하고 있는 「五功臣會盟文記」는 世祖 2年(1456) 11月 14일에 發表된 것이다. 이는 韓明澮등이 端宗의 王位를 裕讓形式으로 篡奪하고, 執權後 2年만에 일어

12) 世祖實錄, 卷4, 2年 6月 2日條

13) 世祖實錄, 卷4, 2年 6月 6日(甲辰)條

14) 世祖實錄, 卷4, 2年 6月 26日條

15, 16) 대개 御殿에서는 2品이상인 武班 2名이 큰 칼을 차고 左右에 侍立하게 되어 있다. 임금이 端宗과 함께 大殿에 나가게 하고, 成勝, 俞應孚, 朴嶠 등이 別雲劍이 되었는데, 임금이 殿내가 좋다고 하여 別雲劍을 없애라 했다. 成三問이 政院에 建議하여 그것을 없앨 수 없다고 아뢰었으나, 임금이 申叔舟에게 命하여 다시 殿내를 살펴보게하고, 드디어, 別雲劍을 들어가지 말게 하였다.(世祖實錄, 卷4, 2年 6月 2日條)

17) 世祖實錄, 卷4, 2年 6月 7日(乙巳)條

18) 世祖實錄, 卷4, 2年 6月 9日(戊申)條

난 成三問등의 端宗復位運動을 沮止한 후에 世祖의 勢力基盤을 鞏固^{기구}하기 위하여 世子 璋 등 242名이 北壇(北方龍壇)에서 團合의 意志를 文書로 밝힌 것이 이것이다.

따라서 問題되고 있는 未手決者가 있어 혹 變身하여 端宗復位運動에 加擔의 意思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하였으나, 이 들은 思政殿에서 베푼 會盟飲膳宴에만 參席치 않아 手決할 機會가 없었을 뿐, 會盟후에 官職이 오히려 높아졌던 것으로 보아 會盟에 合勢되었음을 물론, 오히려 主動級에 屬하는 人物이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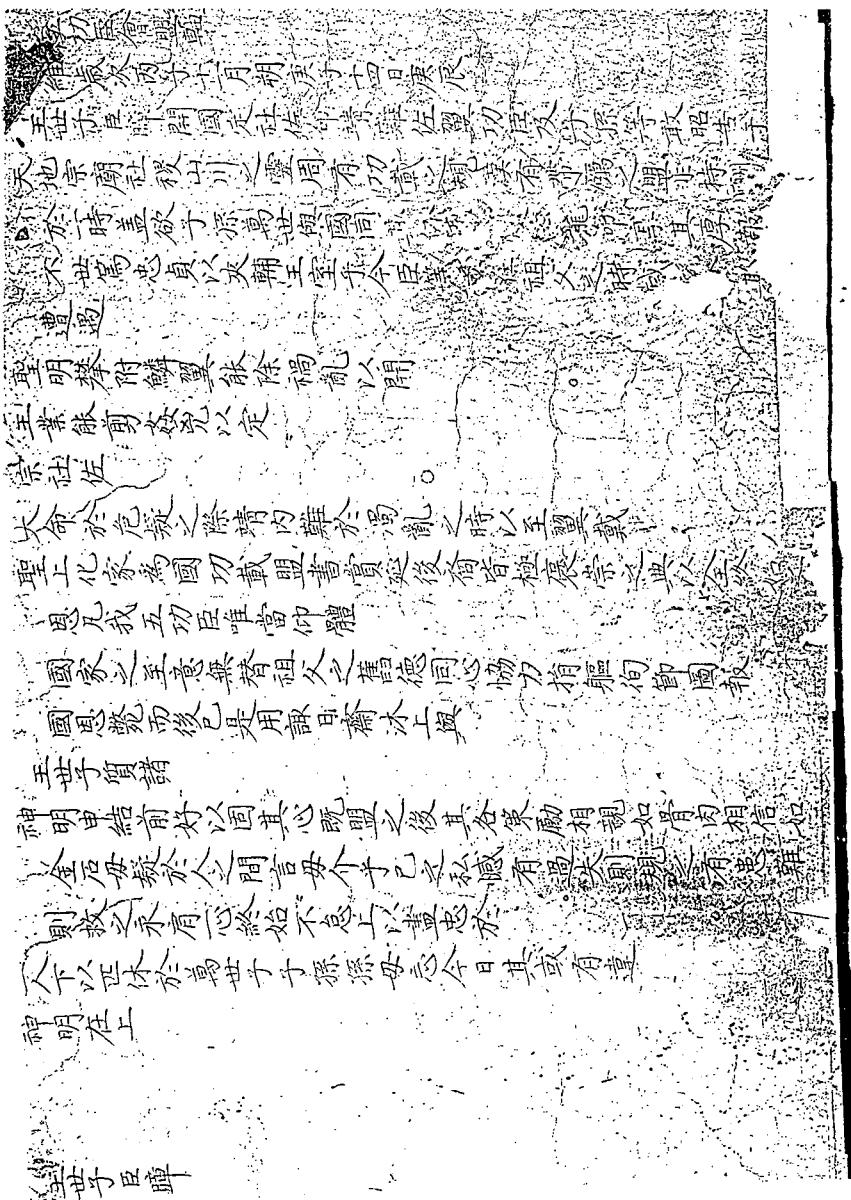
**The Characteristics of
“Vow by Five Meritorious Subjects”**

Woo-Choon Shim*

‘Vow by Five Meritorious Subjects’ was drawn up in November 14 of the second year of King Sejo’s reign. The document was a pledge taken by King Sejo’s son, Prince Chang, and the King’s five meritorious officers in charge of national foundation(開國功臣), affairs(定社功臣), national defense(佐命功臣), national security(靖難功臣), national building(佐翼功臣), and their offsprings in an attempt to consolidate their political power and to eliminate the opposition after having forged their coup as if King Tanjong abdicated his throne in favor of King Sejo.

The signatories to this document numbered 137 persons whereas non-signatories were 83. It appears that those 83 non-signatory were unable to sign the vow for they were not present at the signing ceremony which followed the drafting of the document because all of them had, later on, been promoted to advise King Sejo.

* Visiting professor, Dept. of Lib. & Info. Sci., Choong-ang University.



慕宗定大王子讓寧大君
 慕宗定大王子孝寧大君
 慕宗定大王子臨瀛大君
 慕宗定大王子承膺寧大君
 慕宗定大王子謙寧大君
 慕宗定大王子益寧大君
 慕宗定大王子義昌君
 慕宗定大王子容城君
 慕宗定大王子寧海君
 輸忠勤社同德佐翼功臣桂陽君
 輸忠勤社同德佐翼功臣桂陽君
 輸忠勤社同德佐翼功臣桂陽君
 輸忠勤社同德佐翼功臣桂陽君
 輸忠勤節佐翼功臣崇祿大夫雪城府院君
 輸忠勤節佐翼功臣崇祿大夫坡平君
 輸忠勤節佐翼功臣崇祿大夫梁山君
 推忠佐翼功臣崇祿大夫判中樞院事梁山君
 佐命功臣于崇政大夫前判中樞院事趙惠
 推忠佐翼功臣崇德大夫范川君
 佐命功臣于崇政大夫前判中樞院事趙惠

青 韓 佐 翼 功 臣 子 崇 德 大 夫 河 城 屬 郡
 輸 忠 衛 韓 佐 翼 功 臣 嘉 宣 大 夫 河 城 屬 郡
 推 忠 佐 翼 功 臣 正 宣 大 夫 議 政 府 左 參 賈 判 事 曾 仁 里
 輸 忠 衛 韓 佐 翼 功 臣 正 宣 大 夫 議 政 府 左 參 賈 判 事 曾 仁 里
 佐 命 功 臣 稚 長 正 宣 大 夫 中 樞 院 吏 使 李 幸
 開 國 功 臣 稚 長 資 宣 大 夫 行 上 謹 軍 遷 度
 輸 忠 協 賛 青 韓 佐 翼 功 臣 嘉 宣 大 夫 曾 裁 判 書 兵 川 崇 賢
 輸 忠 協 賛 青 韓 佐 翼 功 臣 嘉 宣 大 夫 曾 裁 判 書 兵 川 崇 賢
 佐 命 功 臣 稚 長 資 宣 大 夫 行 上 謹 軍 遷 度
 開 國 功 臣 稚 長 資 宣 大 夫 行 上 謹 軍 遷 度
 推 忠 佐 翼 功 臣 資 宣 大 夫 知 中 樞 院 事 錦 川 崇 望
 輸 忠 衛 社 協 賛 韓 佐 翼 功 資 宣 大 夫 曾 裁 判 書 南 陽 呂 洪 道
 佐 命 功 臣 稚 長 資 宣 大 夫 前 慶 州 府 尹 馬 詩
 朴 昌 大 王 子 中 義 大 夫 義 平 君 遷 仁 里
 輸 忠 協 賛 韓 佐 翼 功 臣 嘉 昌 大 夫 評 内 侍 府 事 金 有 翁
 開 國 功 臣 稚 長 嘉 昌 大 夫 延 昌 府 尹 金 有 翁
 開 國 定 社 佐 命 功 臣 稚 長 嘉 昌 大 夫 前 中 樞 院 副 使 朴 春 貞
 推 忠 佐 翼 功 臣 嘉 昌 大 夫 曾 裁 判 集 賢 殿 提 學 朴 春 貞
 輸 忠 協 賛 韓 佐 翼 功 臣 嘉 昌 大 夫 曾 裁 判 集 賢 殿 提 學 朴 春 貞
 朴 昌 大 王 子 宣 義 大 夫 宣 城 君 遷 仁 里
 朴 昌 大 王 子 正 義 大 夫 鎮 南 府 尹 金 有 翁
 開 國 定 社 功 臣 稚 長 正 義 大 夫 花 林 君 遷 仁 里
 輸 忠 協 賛 韓 佐 翼 功 臣 嘉 善 大 夫 前 慶 州 府 尹 金 有 翁
 佐 命 功 臣 子 嘉 善 大 夫 前 慶 州 府 尹 金 有 翁

推忠靖難功臣嘉善大夫雜林君
 開國功臣嫡長嘉善大夫漢城府尹洪柳君
 擲忠佐命功臣嘉善大夫中樞院副使金鍾
 擲忠輔佐命功臣嘉善大夫中樞院副使金鍾
 輸忠協策靖難功臣嘉善大夫檢校漢城尹
 輸忠協策靖難功臣嘉善大夫檢校漢城尹
 擲忠佐翼功臣嘉善大夫中樞院副使江城君
 推忠靖難功臣嘉善大夫同知中樞院事信川君康
 推忠佐翼功臣嘉善大夫二曹參判成安君元
 開國功臣嫡長嘉善大夫檢校漢城尹柳宣
 佐命功臣嘉善大夫檢校漢城尹柳宣
 輸忠靖大王于明善大夫天德掌正臣厚生
 輸忠靖大王于明善大夫天德掌正臣厚生
 定社功臣長孫明善大夫成林正臣厚生
 輸忠協策靖難功臣通政大夫前僉知中樞院事柳河
 擲忠佐翼功臣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崔治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二曹參議黃華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二曹參議黃華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副丞相兼兵部侍郎金弘道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副丞相兼兵部侍郎金弘道
推忠青難功臣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金弘道
推忠青難功臣通政大夫僉知中樞院事金弘道
佐命功臣于通政大夫慶尚道右道水軍參撫慶置金弘道
佐命功臣于通政大夫行忠佐侍衛司上護軍金弘道
開國功臣于通政大夫檢校工曹參議李弘道
佐命功臣于通政大夫檢校工曹參議李弘道
佐命功臣于通政大夫檢校工曹參議成弘道
佐命功臣于通政大夫前判禮門事尹弘道
推忠佐翼功臣折衝將軍龍驤侍衛司護軍兼判禮門事李弘道
推忠佐翼功臣于通政大夫諫院右諫大夫兼教諭春倉編修官權
佐命功臣于通政大夫判禮賓寺事沈弘道
推忠佐翼功臣通政大夫判軍器監事李弘道
開國定社功臣嫡長折衝將軍行左軍司正金弘道
開國定社功臣嫡長折衝將軍行中軍司正金弘道
佐命功臣嫡長折衝將軍行忠佐侍衛司大護軍權
佐命功臣嫡長折衝將軍行忠佐侍衛司右領護軍金弘道
開國功臣嫡長折衝將軍行右軍副司正尹弘道
開國功臣嫡長折衝將軍行右軍副司正金弘道
定社佐命功臣長孫折衝將軍行右軍司正河清生
佐命功臣于折衝將軍行忠佐侍衛司大護軍朴宣直
佐命功臣長子折衝將軍行右軍司正尹作
開國定社佐命功臣嫡長折衝將軍行中軍司正李榮水
佐命功臣嫡長折衝將軍行左軍副司正尹利

佐命功臣嫡長折衝將軍行左軍司正宋
 佐命功臣嫡長折衝將軍行右軍司正金
 開國功臣嫡長折衝將軍行右軍司正金
 開國定社功臣嫡長通政大夫兼同食知敷寧
 靖華佐翼功臣嫡長通政大夫前行司僕寺尹
 雜忠佐翼功臣通政大夫行成均司成兼勦捕
 雜忠靖難功臣果毅將軍義興侍衛司護軍兼
 輸忠勁節佐翼功臣通訓大夫判宗溥寺事權
 雜忠靖難功臣果毅將軍行義興侍衛司大護軍
 雜忠靖難功臣通訓大夫判繕工寺事長柳
 雜忠靖難功臣果毅將軍行虎賁侍衛司大護軍
 雜忠佐翼功臣果毅將軍行義興侍衛司大護軍
 雜忠佐翼功臣果毅將軍行義興侍衛司大護軍
 開國功臣嫡長通訓大夫前行典農少尹趙
 雜忠靖難功臣保義將軍行義興侍衛司大護軍
 佐命功臣嫡長保義將軍行涼軍副司正金
 靖華佐翼功臣嫡長中直大夫同食知敷寧
 佐命功臣嫡長通訓大夫前行典農少尹趙
 雜忠靖難功臣保功將軍虎賁侍衛司大護軍
 靖難佐翼功臣中訓大夫副知敷寧直修文殿
 靖難功臣子中訓大夫前行承宣與判官
 開國功臣嫡長保功將軍行右軍司馬趙
 開國功臣嫡長保功將軍前義興侍衛司大護軍
 開國定社佐命功臣嫡長保功將軍行右軍副司正趙
 佐翼功臣子中訓大夫前行同副知敷寧李
 開國功臣嫡長中訓大夫通都護使兼勦農兵馬團鍊使金

佐命功臣子中訓大夫李平
 推忠靖難功臣奉正大夫守司僕寺尹鄭基
 定社功臣嫡長威勇將軍行中軍副司正張忠善
 靖難佐翼功臣嫡長奉正大夫延子右文學李基
 佐翼功臣嫡長奉正大夫前副知禮門事李基
 開國功臣嫡長威勇將軍左軍護軍李基
 推忠靖難功臣奉正大夫行司寧副正權李基
 定社佐命功臣嫡長威勇將軍行右軍司勇李基
 佐翼功臣嫡長宣節將軍驥侍衛司領軍兼司寧掌令尹基
 推忠靖難功臣朝散大夫軍器副正洪基
 開國定社佐命功臣宣節將軍前龍驥侍衛司領護軍趙基
 開國功臣嫡長宣節將軍行右軍副司正劉智基
 佐命功臣長孫宣節將軍行右軍副司正李基
 仁刀兵箭長宣節將軍行中軍司正韓基
 開國功臣嫡長宣節將軍行右軍司正鄭基
 定社佐命功臣長子宣節將軍行右軍副司正李基
 推忠靖難功臣朝散大夫司僕少尹韓基
 定社佐命功臣朝散大夫典農少尹朱基
 靖難功臣子朝散大夫前行內資判官金基
 佐命功臣嫡長朝散大夫知山都事兼勸農參議國錄副使金基
 靖難功臣子宣略將軍前忠佐侍衛司方領護軍金基
 佐命功臣嫡長宣略將軍虎賁侍衛司前領護軍徐基
 開國定社功臣長孫宣略將軍行右軍司正張基

靖難佐翼功臣嫡長通德郎行道官注簿法
 靖難佐翼功臣嫡長通德節前行通禮門奉禮郎中時
 靖難功臣嫡長通德節行定縣監兼勳於官命通禮門奉禮
 佐翼功臣子忠毅校尉行右軍副司正厚
 佐命功臣長子忠毅校尉行左軍副司正厚
 閑國功臣長子忠毅校尉行右軍副司正厚
 佐翼功臣嫡長忠毅校尉行中軍副司正厚
 佐翼功臣嫡長通善郎行宗廟署令元
 靖難功臣子通善郎行典廄署令權合
 靖難功臣子奉直郎前集賢殿副校理製教經
 佐命功臣子奉直郎宗等判官李輝
 佐命功臣子顯信校尉前中軍司直金參
 佐命功臣嫡長顯信校尉行右軍司勇
 靖難功臣子顯信校尉行左軍副司直兼司憲監察
 佐命功臣嫡長顯信校尉行中軍副司正柳
 定社佐命功臣長孫顯信校尉行右軍副司勇
 閑國佐命功臣嫡長彰信校尉行右軍司勇
 靖難佐翼功臣子奉訓郎前行中郎令申時
 閑國功臣嫡長彰信校尉右軍副司直
 佐翼功臣嫡長奉訓郎行通禮門奉禮郎黃
 推忠靖難功臣教勇校尉前行右軍副司直
 靖難佐翼功臣嫡長於議郎前行司僕直李時

靖難功臣嫡長水議郎前行漢城參軍朴
 靖難功臣子進易校尉行中軍隅司正朴
 靖難功臣子翼長宣教節禮賓注等姜允
 靖難功臣子承義校尉前行右軍隅副司正金瑞錄事朴
 佐命功臣嫡長承義校尉行右軍隅司勇沈昌
 靖難佐翼功臣子承義校尉前行左軍司正
 佐命功臣嫡長承義校尉行右軍隅司勇
 閑國定社佐命功臣嫡長承義校尉行右軍隅司勇
 靖難佐翼功臣嫡長承義校尉行右軍隅司正楊有
 閑國功臣嫡長承義校尉行右軍隅司勇鄭承
 靖難佐翼功臣子承義校尉行右軍隅司正洪
 佐命功臣子承義校尉行右軍隅司正
 靖難佐翼功臣子宣放郎前行鑄江銀事李時
 佐翼功臣嫡長宣務郎守敦寧注符尹成
 靖難佐翼功臣子宣務郎前行司贍副直長申
 佐命功臣嫡長修義校尉前中軍隅副司朴
 佐翼功臣嫡長宣務郎行典廩丞鄭成
 佐翼功臣嫡長宣務郎行長庫直長朴
 閑國功臣嫡長修義校尉行中軍隅副司正李
 佐翼功臣嫡長宣務郎行敦寧府副丞尹成
 佐翼功臣嫡長宣務郎行軍器錄事朴
 靖難佐翼功臣子敦勇副尉行中軍隅司正李
 佐翼功臣子務功郎行濟用錄事尹成
 靖難功臣嫡長敦勇副尉行右軍隅副司正
 佐翼功臣子務功郎行敦寧府錄事尹成

靖難功臣靖長幼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
靖難佐翼功臣靖長幼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
靖難佐翼功臣靖長幼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學
靖難佐翼功臣子幼學學學學學學學學學
靖難佐翼功臣子幼學學學學學學學
靖難佐翼功臣子幼學學學學學
靖難佐翼功臣子幼學學學學
靖難佐翼功臣子幼學學學
靖難國功臣靖長幼學學學學
靖難功臣靖長幼學學學
靖難功臣靖长幼學學
靖難功臣靖长幼學學
靖難功臣靖长幼學學